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후티 탕 홍해 환경재앙 위기...침몰 위기 피격선에 화학비료 가득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공격을 받고 침몰 위기에 놓인 화물선에 4만 톤이 넘는 비료가 실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재앙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24일 (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지난 18일 후티의 공격을 받고 아덴만에 발이 묶인 벨리즈 선적의 영국 소유 벌크선 루비마르호에 서서히 물이 차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의 이유 없는 무모한 공격으로 선박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약 29km에 달하는 기름띠가 형성됐다”며 “루비마르호는 공격받을 당시 4만 1천 톤이 넘는 비료를 운송 중이었는데, 이것이 홍해로 유출될 수 있고, 환경재앙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티 반군은 어업, 해안 지역사회, 식량 수입을 위협하면서 무차별 공격이 역내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루비마르호가 침몰할 경우 후티가 홍해를 지나다니는 민간 선박을 공격한 이래 가장 심각한 여파가 뒤따를 수 있다는 평가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유엔이 인정하는 예멘 정부는 이날 루비마르호 침몰이 야기할 수 있는 생태학적 재앙을 막기 위해 비상 계획을 수립할 것을 관련 위원회에 지시했다. 주변국과 해양 보호 관련 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에도 위기 해결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대량의 화학비료가 바다에 쏟아져 들어간다면 안 그래도 취약한 상태인 홍해 해양 생태계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루비마르호는 아랍에미리트(UAE) 코르파칸을 출항해 불가리아 바르나로 향하던 중 후티의 공격을 받고 해상에서 완전히 멈춰 섰으며 선원 24명은 전원 하선해 대피한 상황이다.

후티는 심각한 기름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조선에 공격했다. 중부사령부는 25일 성명에서 후티가 전날 오후 11시45분께 아덴만을 향해하던 미국 선적의 유조선 톰 소르호를 겨냥해 대함 탄도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목표물을 빗나간 미사일은 바다와 충돌했으나 유조선과 승조원에게 피해를 주진 않았다고 중부사령부는 설명했다. 후티는 이날 자신들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해 홍해 해상로를 계속 공격함에 따라 유조선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밝혔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로마서 8:21.22)

하나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개입된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환경재앙의 위기에 놓인 홍해와 선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이에 따른 피해를 무시한 채 무차별 공격으로 모두를 위협하는 후티 반군에게 복음을 계시하사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분쟁을 멈추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예멘의 영혼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부르짖어 탄식과 고통이 멈추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되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 세이브더칠드런 “우크라이나 아동 63만 명 귀환…인도적 위기 우려”

국제아동 권리 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이 피난 갔던 우크라이나 아동들이 전쟁 발발 2년 만인 최근 집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생계·건강·안전의 위협 등으로 인도주의적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제이주기구(IOM)는 전쟁으로 피난을 떠났던 우크라이나 아동 중 약 63만 명이 귀환해 이 중 36만 명은 드니프로 등 분쟁 영향을 받는 접전 지역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22년 2월 분쟁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1,50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빠른 이주 위기가 펼쳐졌고, 아동 587명을 포함해 1만 500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년간 아동 110만 명 등 260만 명을 대상으로 임시 대피소 제공, 생필품 지원, 식수 및 위생 서비스 지원 등을 제공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 집을 떠나있던 아동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이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불안한 우크라이나에 주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을 속히 끝내주시고 이들을 돕는 여러 기관과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섬겨 아이들의 두려움과 근심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피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부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을 주님 안에서 누리며 하늘 본향에 소망을 두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 미국 개신교인 88%, ‘혼합주의’ 수용…‘성경적 세계관’ 지지는 9%

미국인 대부분이 혼합주의를 수용하고 있으며 개신교인 88%도 혼합주의를 따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전했다. 미 애리조나기독교대학 산하 문화연구센터가 19일 발표한 ‘미국인 세계관 목록’에 따르면, 미국인 92%가 혼합주의를 받아들이며 성경적 유신론을 따르는 사람은 4%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주의는 “서로 다른 생각과 이념, 신념, 행동 및 원칙들을 섞어서 새로운 세계관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또 개신교인 중 88%가 혼합주의를 용인했고, 9%만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 미국인은 성경을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인생의 지침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에 “중요한 지침서”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시편 119:105-106)

하나님, 마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같이 새로운 세계관이라는 보암직한 포장지로 영혼을 병들게 하는 혼합주의를 모든 사람이 버리길 주님께 간구합니다. 미국이 빛 되신 주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이 땅의 수많은 선교사의 희생과 헌신으로 구원 받은 열방의 성도들이 받은 사랑의 빛을 기억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작지만 주님 편에서 큰 용사와 같은 9%의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감사드리고, 이들이 더욱 주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은혜의 복음에 자신을 드려 선교 완성의 일꾼으로 서게 하소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프랑스 상원, ‘낙태 자유 명시’ 헌법 개정안 승인…3월 4일 최종 투표



프랑스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28일(현지시간) 낙태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찬성 267표 대 반대 50표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헌법 제34조 ‘법률 규정 사항’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달 30일 하원도 찬성 493표, 반대 30표로 이 법안을 승인한 바 있다.

상·하원에서 개정안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정부는 3월 4일 양원 합동회의를 소집해 헌법 개정의 최종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된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개헌 절차가 완료되면 프랑스는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시한 첫 번째 국가가 된다. 1975년 낙태죄를 폐지한 프랑스는 일반 법률로 낙태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프랑스 내에선 낙태를 ‘되돌릴 수 없는’ 헌법적 권리로 만들자는 요구가 나왔다.

한편 공화당 소속 제라르 라르셰르 상원의장을 비롯한 일부 보수 의원들은 “프랑스에서는 낙태권이 위협받고 있지 않다. 헌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낙태 반대 운동가들은 의회 앞에 모여 투표 결과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친생명운동인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의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마리-리스 펠리시에(Marie-Lys Pellissier)는 “이번 헌법 개정은 사회의 가장 약한 구성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그가 스스로 해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에스겔 18:28,30-31)

하나님, 자유와 권리라는 미혹 된 말로 생명의 주 하나님을 반역하는 낙태죄를 허용하고, 되돌릴 수 없도록 헌법에 명문화하려는 프랑스의 악한 시도가 무너지게 하소서. 선하고 옳은 길을 함께 따라가기보다 도리어 죄악을 더욱 굳게 하려는 완고한 심령을 주께서 새롭게 하사 모든 죄를 버리고 돌이켜 떠나 생명을 얻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교회가 기도로 힘써 싸우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친히 역사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프랑스가 주의 법을 즐거이 따르며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 독일 에센 시, 택시에 성경구절 스티커 붙인 운전사에 벌금형

독일 에센 지방 당국이 택시에 성경 구절을 붙였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사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최근 크리스천포스트(CP)가 전했다. 도로교통 당국은 택시 기사 잘릴 마샬리(Jalil Mashali)가 부착한 '예수-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적힌 스티커를 불법적인 '종교 광고'로 간주해 벌금을 물렸다. 이에 마샬리는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의 도움을 받아 이 스티커가 광고가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며 벌금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란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마샬리는 스티커는 광고가 아니라 신념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실한 무슬림으로 태어나고 자란 이란에서 이주해 22년 동안 독일에서 살았다.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은 기도와 신앙의 힘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스티커를 그의 영적 여정의 상징으로 삼았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요한복음 15:17-19)

하나님, 불의에 대하여는 법으로 옹호하지만, 평화적인 신앙표현은 당국의 권력으로 막아서는 독일을 주께서 책망하사 회개하고 돌이켜 진리를 수호하는 나라로 세우소서. 기도와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는 잘릴 형제님을 축복하시고 그가 더욱 주님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문제와 상황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 많은 무슬림이 주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교회를 깨우사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워져 모든 민족이 길과 진리 되신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하소서.

▲ 미국 학부모 68%, 학교 성 정체성 교육 반대

미국 학부모의 대다수가 학교에서 성 정체성을 가르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공립학교 교사도 학부모들과 같은 견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크리스체너티투데이가 26일 전했다. 퓨리서치 센터가 미국인과 공립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학부모의 68%는 자녀가 학교에서 성 정체성에 대해 배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나(37%), 성별은 “출생 시 성별에 따라 결정된다”(31%)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이 성별에 대해 출생 시 성별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는 31%에 불과했다. 한편 공립학교 초중고 교사의 64%가 아이들에게 성 정체성에 대해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50%), 성별은 ‘태어날 때 부여된 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다(14%). 공립학교 교사의 33%는 아이들에게 “태어날 때 부여된 성별과 다를 수 있다”고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디모데전서 1:12,14)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가장 완전한 주님의 형상에 사탄이 독을 뿌려 거짓과 속임으로 다른 성을 가르쳐야 하는 미국의 교육 상황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미국의 교사와 학부모가 다음세대를 양육하고 바른길로 인도해야 하는 부르심과 소명을 소중히 여겨 성경의 가치관을 가르치고 더욱 복음에 분명한 목소리를 높이게 하소서. 말씀으로 회복된 미국의 모든세대가 창조하신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영국 상원 토론회 ‘전환치료 금지법’ 도입 반대...“국제적 최초 사례”



영국의 기독교 옹호 단체인 크리스천컨선(Christian Concern)은 종교 및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 ‘동성애 전환치료 금지 법안’에 반대한 영국 상원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 단체는 지난주 영국 의회에서 상원 법안 5호에 관한 토론회에 대해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에서 전환 치료 금지를 지지하는 정치인들보다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더 많았다”면서 “이는 국제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상원 법안 5호는 개인의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타고난 성별로 전환하려는 시도 또는 후천적으로 바꾼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표현을 억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법이 제정되면 위반자는 “표준 기준 5등급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5등급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 형량이 규정되지 않아 벌금이 무제한이다.

지난주 법안 5호에 대한 토론회에서 29명 상원 의원들이 반대를 표명했으며, 15명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단체 최고경영자인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성명에서 “현실보다 이념에 기초한 극단적인 법안에 대해 이렇게 많은 의원이 상식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나 “기독교인이 친구에게 성경적 성 윤리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것을 범죄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치료사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개인이나 집단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변경하려고 시도하거나, 그러한 표현을 억제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범죄화될 수 있다”고 했다.

크리스천컨선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문제에 대해 합의된 개인 간의 대화”가 범죄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화에는 “부모와 자녀, 가족과 가족 구성원, 치료사와 고객, 성직자와 교인, 기타 종교 단체, 인생 코치, 자기 도우미 그룹의 지원자 및 구성원, 의사나 의료진과 그들의 환자들”의 대화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단체는 “아들이 여장하는 것을 부모가 거부하는 경우”나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문제에 대한 회의 및 교육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들”도 법적 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하원은 3월 1일, 이 법안에 대한 2차 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원 버전의 법안은 영국의 상하원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로 송부되어 심사받게 된다(출처: 기독교일보 종합).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마태복음 5:14-15)

하나님, 교회를 박해하며 영국 사회와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법안이 제정되기 전 이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을 일으켜 주사 이 악법의 실상을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국의 교회도 기도로 함께 싸우며 진리의 빛으로 일어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죄와 사탄의 실체를 밝히 비추어 십자가 복음 앞에 서는 이 땅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거짓과 세속에 물들어 가는 영국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법을 철회할 뿐 아니라, 거룩한 복음의 빛을 받아 누리며 전하는 나라로 회복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 이란 기독교인, ‘사이버 감시’ 등 박해 심각

기독교 인권 단체들이 이란에서 기독교인들의 기독교 박해 상황이 심각하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최근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의 기독교인들은 데이터·사진·대화 스크린샷·화상통화 녹음 등 자신도 모르는 사이 첨단 기술의 감시를 받고 있고 구금된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포기하라는 극심한 압박과 가혹한 심문을 받고 있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한 형제는 심문관들이 기독교를 선택한 이상 당신에겐 이제 권리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며 무죄판결 이후에도 이슬람 재교육을 들어야 했다고 전했다. 기독교 인권 단체 ‘아티클18’은 이란의 기독교인들은 오랫동안 감시와 폭력적인 압박을 받아왔고, 특히 새로운 정교한 형태의 사이버 감시가 사용된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국제사회는 이란의 기독교인들이 직면한 조직적 탄압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요한계시록 3:8,11)

하나님,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첨단 기술을 역으로 이용해 기독교인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란 정부의 불의를 책망하여 주십시오. 이슬람의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교묘한 술수로 압박하며 가혹한 심문까지 일삼는 이란 당국과 위정자들에게 주께서 공의의 빛을 비추사 죄악을 멈추고 회개로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이란 교회를 축복하사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고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을 굳게 붙든 신부로 세워주옵소서.

▲ 전 세계 ‘출산율 하락’ 국가 124개국…2010년보다 25% 이상 증가

출산율 하락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운데, 이런 현상의 원인이 경제적 불안정과 꼭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 때문이라고 분석됐다고 연합뉴스가 28일 전했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현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2.1명) 미만으로 떨어진 국가는 2021년 기준 124개국으로 2010년(98개국)보다 25% 이상 늘어났다. 특히 경제력 상위 15위 안에 드는 국가들은 모두 합계출산율이 2.1명 미만으로 내려가 인구 감소가 시작됐다.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일본은 물론 ‘1억 인구’의 베트남도 최근 출산율 하락에 고심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한국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은 이탈리아는 연간 신생아 수가 2009년부터 14년째 감소세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시편 127:3-5)

하나님,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가 전 세계적인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앞에 주님이 허락하신 새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모든 영혼에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없는 정치, 사회, 교육이 얼마나 나의 원함을 추구하며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게 하는지 모든 젊은이가 죄인 됨의 실상을 깨달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게 하소서. 여호와와 기업이요 상급인 자녀들을 교회가 먼저 감사함으로 받고 양육하여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선하심을 나타내는 복된 다음세대로 지라 나게 하옵소서.